

주인애기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8
Aug. 2015
Vol.3 No.8

- 말씀사경회
- 멕시코 단기선교
- 교협행사 및 예배
- 화보 / 간증 / 칼럼

주안애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새벽 어두움 가르며 "Dios te ama!"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멕시코 까말루지역 단기선교

멕시코 까말루 단기선교팀은 8월 12일 4:00 AM 벨리체플에 모여 개인 및 공동물품을 차량에 싣고 출발준비를 완료하고 새벽예배를 마친 후 권사님들이 준비해 준 아침식사를 하고 7:30 AM 출발하였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정은 멕시코 국경을 통과하며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버스에 싣고 가던 모든 짐을 내려서 검색하고 다시 싣기까지 1시간 30분 이상 지체되었고 목적지에 저녁 6시가 되어 도착하였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기에 선교팀은 서둘러 사역을 시작했다. 특히 의료팀은 이미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을 치료하며 첫날 사역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 선교일정은 새벽에 나간 커피 전도였다. 이는 현지 신학생들과 우리 선교팀이 3지역을 3개 조로 나누어 함께 새벽 4시부터 까말루 지역 농장에 일하러 가는 약 600여명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영접기도를 하도록 돕는 복음전도 사역이었다. 새벽부터 생존을 위해 뛰는 저들에게서 생명의 고귀함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다시 선교센터로 돌아와 주방팀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고 8:00 AM 다음 일정한 재활원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외치며 등단한 솔로



VBS에 참석한 까말루지역 어린이들

몬 전도사는 시편 103편으로 말씀을 전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배고픈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충만하면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늘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현 지인 George 목사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었다. 선교팀 대표로 김준억 장로의 인사로 재활원 방문을 마쳤다.

다음은 각 팀별로 맡은 사역에 봉사했다. 건축과 의료팀은 선교센터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건축팀은 전기공사와 구조가 잘못되어

지붕이 내려앉고 있는 건물에 기둥 보강공사를 했다. 전기 공사도 예정보다 많은 부분을 소화했고, 선교센터의 일부 건물에 페인트로 산뜻하게 새로 단장했다.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진행한 페인트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번 선교에 특별한 봉사가 있었는데 피아노 조율이였다. 오철호 집사는 선교센터의 10년 이상 쓰지 못하고 있던 피아노를 조율해주었다.

의료팀은 2명의 한의사와 간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건강상태들이 너무 나빠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지 대책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0면서 계속>
| 김경일 기자 |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소식



남가주 교계 연합 광복70주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가 주관하고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가 공동 주최한 조국 광복 70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졌다.

남가주 원로목사회, 빨리 원로목사회, 샌버나디노 교회협의회,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등이 공동협력하여 열린 이번 감사예배는 광복절 기념일인 지난 8월 15일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약 200여명의 교계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열렸다.

이날 예배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인 이상우 목사의 개회기도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최혁 목사의 환영인사로 시작

되었다. 특히 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 집회 대표회장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본국에서도 70개의 교단과 모든 기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광복 7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도로 연합된 교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합감사예배 설교를 맡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박희민 목사는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라는 제목의 설교로 조국의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에 이민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 참여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날 예배시간 중에는 “조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한인사회

와 교계를 위해”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계연합감사예배를 공동개최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최혁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남가주의 교계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며 감사를 드렸다. 또한 최목사는 “광복 70주년 기념 교계연합감사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입니다”라고 말하며 교계 리더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연합감사예배는 남가주 지역 교계 원로들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교계 대표들과 귀빈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 이정미 집사 |



100여명 목회자 초청 칼스배드에서 세미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8월 10일-12일 2박 3일 동안 샌디에고 근교 칼스배드에 위치한 할러데이인에서

열렸다.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목사인 정필도 목사를 감사로 초청한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이민교회 목회자를 위한 건강한 목회, 건강

한 영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관계기사: 8면)

■ 말씀사경회

정필도 목사 초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충만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를 모시고 말씀 사경회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청지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 말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4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여야 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다. 셋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를 한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정비례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란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다.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사랑에 감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마 8:44). 그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3. 하나님 자녀의 사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첫째,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박해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한다. 둘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걱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셋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다가 재림예수를 맞이할 것인지를 걱정해야 한다.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전 10:31).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 요약: 조성운 기자 |



■ 청지기 세미나

모이고 말씀 읽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이고(행 6:3,5)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유 1:19)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인데 고린도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교회 출석을 잘하는 성도가 되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마 18:20)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히 10:25). 사단은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날마다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라. 성

도는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하고,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른 생활이 가능하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록된 대로 복을 받는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신 10:13).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엡 3:20).

셋째,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삼상 12:23). 이 사무엘의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이다. 2) 기도로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3)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기도는 체험신앙이 된다. 기도하면 축복으로 바뀐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약 4:2). 4) 환란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가 되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50:15).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 출석을 잘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주안예교회 리더들이 되라.

| 요약: 김경일 기자 |

은혜의 강단 **최혁 담임목사**

‘초막절 영성,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 시리즈 #17/ 본문 8:10-18)

초막절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잘 지키지 않으면 재앙과 벌을 내리십니다(슌14:16-19).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초막절 영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막절의 배경은 광야 40년의 역사에서 나옵니다(레23:40).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여 주시고, 반석의 물로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할일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 천막을 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신앙고백을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선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더 준다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선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선물인 가나안을 다스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나는 선물이 없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



데 왜 나는 가난한 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선물에 울고 웃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만 기뻐하면 선물을 주지만, 그 선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에 노예가 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신앙, 그런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풍요와 다산을 기뻐하며,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땅을 초토화 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 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돈과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물질

이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쁨에 근원이 무엇인가를 물으십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면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이 땅의 환경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 받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는 것입니다. 철야기도의 목적이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형 탕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질투가 났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지만 기쁘지 않았습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한 분이면 기쁘다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때를 씹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습니다. 초막절 영성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바울은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 드리면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 최혁목사의 '초막절 영성' 설교 중
요약: 조성운 기자 |

[목회부]

- 9/3(목) 기도회(세리토스채플)
- 9/4(금) 기도회(밸리채플)
- 9/6(주일)-9/7(월) 한어청년부 수련회
- 9/12(토) 주안에만남(한어청년부)
- 9/17(목) 교구장 모임(세리토스채플)
- 9/18(금) 교구장 모임(밸리채플)

[교육부]

- 9/20(주일) 교육부 교사/학부모 모임(밸리채플)
- 9/27(주일) 교육부 교사/학부모 모임(세리토스채플)

[평신도사역훈련원]

주안에만남(18주) 기간: 7/23(목)-11/20(금)

Ministry Calendar

SEPTEMBER

■ 교육부 소식

■ 문서국 새내기 기자



'성경통독 · 기도로 교사 직분 감당' 다짐

짙지 않았던 무더운 날씨의 여름방학동안 교육부에서는 분주하게 새학기를 맞이할 준비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 19:14)

교육부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교사, 스텝)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주일학교에서 힘써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달부터 성경통독을 통한 교육부 말씀 양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낮에 모이는 교육부 미팅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디렉터 이명재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양육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선생님들과 스텝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 교육의 여러 과정 중에서 준비한 첫 단계가 성경통독을 통한 말씀 훈련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교육부를 소망하며 지난주일(8. 9. 2015)에는 교육부 전체 단합대회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수지 집사님의 베이비 샤워를 교육부의 한 분 집사님 커뮤니티 풀에서 가졌습니다.

교육부 교사와 스텝들 각 가정에서 한두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넉넉하신 교육부 국장님의 인심으로 삼겹살과 돼지갈비가 메인 디쉬로 나왔던 정말 즐겁고 은혜가 풍



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남사 집사님들은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봉사하시는 맨파워(남자의 힘)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삼겹살과 돼지갈비는 입안에서 얼마나 맛있게 감칠맛 나게 부드럽게 씹히던지... 마치 아주 더운 날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풍성하고 감사한 식사시간이 끝나고 시작한 베이비 샤워는 김 집사님의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고 기뻐하며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는 축복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이비 샤워에 걸맞은 몇 가지 재미난 게임으로 경품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치열한 경쟁탈전(?)도 있었고 서로 필요한 것 먼저 가져가게 하는 배려도 함께 공존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

"그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헌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매 주일 아침이면 모두 모여 힘써 기도합니다.

이번 교육부 단합대회를 통해 교육부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 번 직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결단의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날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주안예교회 교육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과 어린 영혼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 박희정 기자 |



이하나 집사



박희정 집사

**주안예교회 사역현장
생생한 소식 전할래요**

주안예신문에 새내기 기자 2명이 합류하였다. 세리토스 채플의 이하나 집사는 "신앙 생활을 되돌아볼 때, 제가 보람을 느끼며 행복했을 때가 제가 쓴 글을 누군가 읽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였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안예신문 기자로 인도하심에 기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는 보람된 사역을 겸손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밸리 채플의 박희정 집사는 "저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일 처음의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왜 저입니까?(Why me?)'라고 하며 편한 믿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이유없이 순종하는 '호세아'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기자의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리토스 채플의 이하나 집사는 일간지에 평신도 칼럼에 글을 써왔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주안에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사역의 현장소식을 전하고, 밸리 채플의 박희정 집사는 교육부에서 봉사하며 학부모, 교사로서 느낀 점과 가정주부로서 필요하고 나누고 싶은 글을 써서 주안예교회 신문이 한층 생생하고 알찬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12면에

아	하	스	아	두	기	고
킵	막	벨	라			레
보	아	너	게	기	르	가
불	다	시	스	라		
살	로	메	몬	무	지	개
		두			시	
	아	기	스	나	아	만
라	합	루	사	나	단	
		아	이	로		

말씀사경회

행복한 교회, 주안에교회 활기 넘쳐요!



목회자세미나



주안에라이프 가을학기 개강



메마른 까말루 벌판에 복음의 씨앗을...

멕시코 단기선교



■ 목회자 세미나



마음 다한 섬김, 사랑과 기쁨이 샘물처럼

교협이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는 일에 감사와 기대가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섬김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실 성령님께서 의탁하며 San Diego Carlsbad로 향했습니다. LA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바다를 끼고 도착한 Carlsbad는 시원한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주방팀, refreshment팀 등 모두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나니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스태프 모두 약 140여분이 되었고 목사님들은 blue색 봉사팀은 burgundy색의 티셔츠로 구분하였는데 보기에 도 좋았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신 목사님들이 재충전하시도록 우리교회 남성총장팀은 은혜의 찬양으로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음식은 교회 주방팀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열심히 요리하여 모두가 즐겁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주방팀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첫 날, 저녁 식사는 시원한 야외 정원에서 푸짐한 음식으로 제공되었고, 총무팀은 방배정, refreshment팀은 예쁜 바구니에 과일, 비타민 등을 방에 갖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들을 음식으로 섬기고 말씀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님이 맡아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섬기는 동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섬김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보



낸 하루였습니다. 모든 첫 날의 순서가 끝난 뒤 정도영 장로님의 인도로 하루를 점검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 8시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의 깊은 영성과 지혜를 들을 수 있었던 강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점심은 건강식으로 회덮밥, 저녁은 여러가지 채소를 듬뿍 곁들인 불고기 바베큐로 목사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밝고 즐거워 보일 때 마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는 것 같아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refreshment팀에서는 다과와 차를 준비하였고, 특히 'welcome'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날 역시 밤 10시경에 강의가 끝나고 이튿날을 마쳤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8시에 강의를 시작하여 11시에 마쳤습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에서 멕시코

로 가는 선교팀들이 왔습니다. 선교팀 편에 보내주신 재료들로 마지막 점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지만,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는데 더운 줄도, 지치는 줄도 모르고 한 마음으로 즐겁게 섬겼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먹서먹하게 시작했던 봉사자들이 어 느덧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배웅 한 뒤 최혁 목사님을 모시고 참가하신 교역자분들, 찬양팀, 봉사팀들과 함께 총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몇 분들의 간증 후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며 함께 그동안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의 고백처럼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이며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김헬렌 기자 |



걱정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걱정이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불평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불만이
전염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웃음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열정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사랑이
전염된다.

- 박재규의 《내 삶의 힌트》 중에서 -

■ 단기선교 간증

"까말루 동심에 아름다운 꿈을"

미용팀은 미용사 박영선, 조수빈 집사님이 머리 자르는 봉사들, 이명주 집사님과 저는 도우미로 함께했습니다.

박영선 집사님은 점심 식사도 안하시고, 한 아이라도 더 자르려고 하시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조수빈 집사님도 순발력 있게, 한 마음으로 환하고 밝은 웃음으로 섬겼고, 이명주 집사님은 머리를 감기고 메니큐어를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여러 곳에서 잘 섬겨주셨습니다.



전은순 권사

팀장인 이복희 권사님은 대야와 수건, 화장품과 메니큐어를 준비해 주셔서 여자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머리를 자르기 전에 머리를 감겨주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씻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샴푸를 손에 따라주어도 머리에 바르고 문지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종식 선교사님께서 머리를 감겨주는 선교팀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세수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물만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등에 물을 부어주시어 시원해 하고 환한 웃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맏딸이어서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셨습니다. 저는 8, 5, 2살이 된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까말루의 아이들을 보니 제가 어렸을 때와 같이 어린 동생들 23명 데리고 와서 돌보며 점심을 먹이며 물을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먼저 섬김을 받았고, 빛진 자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섬김을 받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른이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까말루의 아이들에게도 동족과 이웃을 인도할 영적 리더들이 되고 소외된 자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할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 흘러 저의 영혼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억해서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심고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때, 심은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 한국과 같이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빛진 자로, 우리 선교팀은 작은 몸짓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Connection Through Christ

As I headed off on this mission trip I had no idea what to expect. This short-term mission trip was my first mission trip ever, and I can honestly say it was such a blessing. Even though I did complain and was annoyed at the fact that we had to wake up the first morning at 3:30 to go out and evangelize. I believe that was the morning where God had put me in a situation to experience an event where I was again reminded that connections through God triumphs any relationship. During the evangelism time I was told to go over and pray with Jesús for a person who was suffering from stomach pains. It was at this moment where I was again faced with the realization of how powerful God really is. I did not have to speak Spanish to pray for someone because with prayer the language barrier does not exist. While praying for the same person I felt an immediate connection with Jesús. I felt his love and passion for God. We may reside in different countries and speak different languages, but we were connected through our love for God. This connection is stronger than any friendship and allowed me to immediately want to get closer to Jesús and hear about his journey with God.

As I spent more and more time with him and the other people who were staying at the missionary center I began to realize how much time they spent with God everyday. They went out multiple times a week to evangelize at 4 in the morning along with the morning services and classes that they attended. The people at the center were literally living for God. The things that I did back home was nothing compared to how much time they spent with God on a daily basis. The Fridays and Sundays I give to God did not compare to the everyday Christian lifestyle they lived. This whole mission trip was a great eye opener to how much more I could be doing on a daily basis for God. Along with the constant reinforcement of how powerful God's love really is. As Christians connected through God's love it does not matter if we live in America or Mexico. We are immediately connected by our passion and love for God. Nothing else in this world can compare to this connection and love we have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Derek Chang

■ 멕시코 까말루지역 단기선교

60여 선교팀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 본받아...

〈1편서 계속〉 마약중독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약도 먹고, 가져온 옷가지도 챙겨 입고 신발도 신겨주고...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잠깐 왔다 가지만 이 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사랑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주방, 건축, 의료팀을 제외한 전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는 전도를 실천했다. 대형 텐트 2개를 준비하고, 미용, 솜사탕, 얼음과자, 사진, 풍선아트와 함께 어린이용 점핑 놀이기구도 준비하였다. 미용팀은 머리를 씻기고 자르고 네일아트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 어린이들은 놀이기구에서 놀며 땀 흘리고 얼음과자를 찾았고, 우리는 솜사탕, 얼음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솜사탕, 얼음과자를 먹기 위해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줄은 끝없이 이어졌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주고 기도해 주었지만 글을 몰라 읽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들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5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과 25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였고 식사 전에 VBS팀이 준비한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 모두가 신나서 찬양과 율동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 신나는 잔치에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파티가 시작되었고 미끄럼틀

놀이기구, 솜사탕, 얼음과자, 사진찍어주기 등의 사역이 계속되었다. 많은 아이들은 솜사탕과 얼음과자를 처음 먹어보는데 두 줄을 번갈아 가며 먹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뽑아주니 날아갈 듯 좋아했다. 독사진, 가족사진, 친구들끼리 모여 같이 찍기도 했다. 아이들은 사진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했다.

이날의 점심은 칠리독이었다. 10명 가까운 봉사자가 나누어 주었는데 몰려드는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그렇지만 열심히 만들어



그 위에 침을 얹어주었다. 하나를 가져가 얼른 먹고 다시 오는 아이들도 많았고 집에 있는 엄마와 동생에게 가져다준다면 두세 개를 챙겨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눔과 배려도 배웠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나누어주었다. 준비해온 가방과 장난감, 학용품, 약세서리 등을 백 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다 보니 모자랐다. 이번은 처음이니 다음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선교센터에 돌아와 황홀한 저녁식사 후 예배당에 모여 최혁 목사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목사님은 2박 3일 동안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 결과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와 힘을 얻었고 주안예교회의 섬김에 칭찬과 감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교팀들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셋째 날은 마을 앞 바닷가에서 예배와 기도한 후 산책과 기념촬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시 선교센터로 돌아와 어제와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버스로 데려와서 전날과 같이 VBS팀 예배, 이미용, 네일, 솜사탕, 얼음과자, 사진 등의 사역과 건축과 의료 등 모든 사역이 맡은 곳에서 진행되었다.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왔는데 어제 했던 사역인 만큼 질서 있고, 침착하게 잘 진행되었다.

마지막 저녁은 생선찌개였다. 김찬곤 장로의 섬김으로 선교지에서 생선찌개와 조개구이 맛을 볼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 이종식 선교사로부터 선교보고를 듣고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사역에 임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다. 역시 주안예교회의 저력과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다음 선교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돌아오는 15일은 새벽예배 후 선교센터에 주안예교회 단기선교 기념식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을 정리하여 9:00 AM 출발하여 벨리체플에 7:00 PM 도착하였다. 권사님들이 준비해 준 저녁식사를 하며 3박 4일 간의 단기선교를 마무리 하였다.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아이디어

Breakfast Burrito

박창신 기자



치즈 (shredded cheddar cheese) 3/4컵

4. 잘게 썬 할라피노 1/4컵
5. 아보카도 (길쭉하게 썬) 1/2컵
6. 토마토 1장
7. 소금, 후추가루, 우유 3 큰술, 올리브유 1 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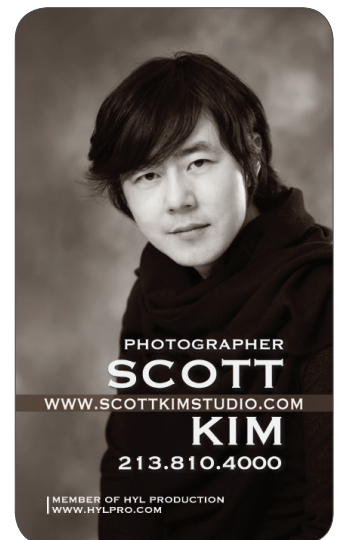
1. 재료

1. 계란 2개
2. 잘게 썬 구운 고기 4-6 조각 (없어도 됨)
3. 채친 채다르

2. 만드는 법

1. 먼저 토마토를 마른 팬에 약한 불로 볶기 시작한다.
2. 달걀에 채친 치즈 1/4컵, 우유, 소금, 후추가루를 넣고 잘 풀어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간 불에 천천히 저으며 살짝 익힌다. (Scrambled egg)
3. 덩어진 토마토에 채친 치즈 1/4컵을 뿌린다.
4. 2번의 달걀 익힌 것, 할라피노, 아보카도, 잘게 썬 구운 고기를 토마토의 중간에 넣고 말아준다.
5. 4번 위에 나머지 치즈와 다진 할라피노를 뿌려 완성한다.
6. Salsa Sauce 또는 토마토 캐첩과 함께 상에 올린다.

교/우/비/즈/니/스



실내 장식 플랜트

집안 공기정화, 쾌적한 분위기를

니형철 장로 (업타운 너서리 운영)

식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삶의 충족 뿐 아니라 생명과의 교체, 아름다움과 영혼과의 교체같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냉난방 등의 이유로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리므로 탁해진 실내공기와 각종 유해가스로 인해 건강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실내 공간을 배치 장식할 때 식물을 배치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 하던 것이 처음, 식물을 실내에 들여 놓을 때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실내 식물은 산소를 공급해 주고 페인트나 카펫 가구, 전자기기들로부터 나오는 유해가스와 독성을 없애주는 기능을 알게된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어느 건물에나 실내식물은 필수적이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실내에 있으면 건강과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1980년 미연방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식물의 공기정화 과정을 실험했는데 식물의 앞에서 물이 증발할 때 물이 증발하는 것과 비례하여 각종 유해가스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식물이 물을 증발시킬 때 뿌리에서는 증발된 만큼 물을 흡수하게 되고 이때 공기도 뿌리쪽으로 이동하는데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이 가까이로 온 화학물질을 분해하여 영양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실내 공간 면적의 5% 정도만 식물이 놓여져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공기정화능력이 있지만 연구결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

가받는 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세베리아(Sansevieria)
2. 벤자민(Ficus Benjamina)
3. 관음죽(Lady Palm)
4. 선인장 및 다육식물
5. 스파티필름(Spathiphyllum)
6. 싱고니움(Syngonium)
7. 돈나무(Pachira)
8. 황야자(Areca Palm)
9. 서양란(Orchid-Phalaenopsis)
10. 꽃이 있는 식물
11. 포도스(Pothos)

위의 식물들은 실내에서 키우기가 쉽지만 특히 산세베리아는 물을 2~3주에 한번만 주고 대부분의 실내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시어머니의 혀바닥(Mother-in-Law’s Tongue)” 이란 재밌는 별명도 있는데 다른 식물에 비해 30배 정도의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낮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기정화효과가 탁월합니다.

포도스도 가장 키우기 쉽고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ians Company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May Queen

Helen
원장
Cell: 562.315.3090

BUS. HOURS:
9:00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Tel: 714.228.9001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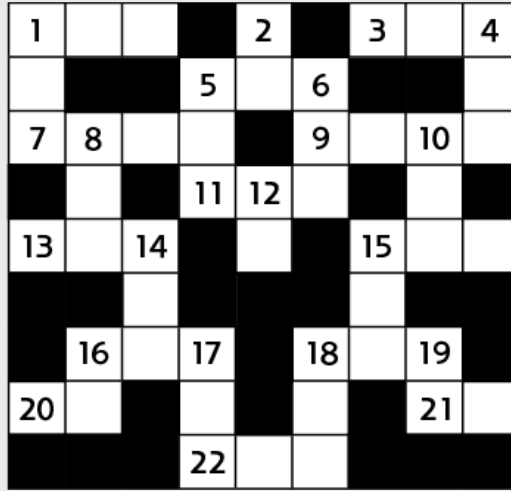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1. 요담의 아들, 히스기야의 부친(마 1:9)
3. 아시아인으로 진실한 집사, 바울의 친구(행 20:4)
5. 아브라함이 자신과 가족의 묘지로 삼기 위해 헛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토지 이름(창 23:9-20)
7.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인 별명으로 '우리의 아들'이란 의미의 말(막 3:17)
9. 가나안의 한 부족(창 10:16)
11.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피하려 했던 곳(욘 1:3)
13. 헤롯의 생일축하석상에서 춤을 추고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헤로디아의 딸
15.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주신 것(창 9:11-17)
16. 다윗을 보호해 준 가드의 왕(삼상 21:10)
18. 문동병에 걸렸다 고침 받은 아람의 군대장관(왕하 5:1,27)
20.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수 2:1)
21. 다윗왕 때 있던 선지자(삼하 7:4-17)
22. 그의 12세된 딸이 예수님에 의해 되살아난 갈릴리지방의 회당장(막 5:21-24)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정답은 5면에〉



〈세로 문제〉

1.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로 하 여금 직분을 삼가 이루도록 권고(골 4:17)
2. 가인에 의해 살해된 그의 동생(창 4:1-8)
4. 예루살렘회복과 성전재건을 허락한 바사제국의 왕(대하 36:22)
6. 예루살렘의 남동편 산언저리에 있던 중요한 요새.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입이 이곳에서 좌절(대하 32:9)
8.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웠으며 고린도교회에 영향을 미친 능력 있는 교사(행 18:24)
10. 밀밭에 흔히 있던 독 보리, 밀과 비슷하나 이삭이 난 후에는 구분(마 13:24-30)
12.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별명은 게바 또는 베드로
14.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8번째(출 10:1-20)
15. 바울이 2차전도여행 때 드로아로 가면서 지난 지역(행 16:7)
17. 다윗의 배다른 누이로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의 어머니(삼상 26:6)
18.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요 11장)
19.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꿀 섞은 과자같이 단 하늘양식(출 16:31)

“주안에” 2015년 9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웅,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서미숙, 서서건, 이하나,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매기, 채은영, 최민애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